

# 조선업 구인난 해소... 목포에 '전남조선업도약센터'

###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0억 확보...대불산단 등 고용 위기 돌파 조선업 구직자 발굴·취업자 정착금 지원·구직-구인 연계 서비스 등

목포에 '전남조선업도약센터'가 들어서며 고용 위기에 처한 전남 조선업이 제도약에 나선다. 목포시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도·영암군과 함께 지원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사업에서는 대불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기반으로 '전남조선업도약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목포역 인근 KT빌딩 2층에서 운영된다.

올해 6일 목포시와 전남도, 영암군,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은 약정식을 열고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터에서는 조선업 구직자를 발굴하고 조선업 신규 취업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취업 정착금을 지원한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역 조선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근무하면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두 420명이다. 일대일 맞춤형으로 조선업 취업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 근로자가 15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 지원으로 총 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남도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조선업체 신규 입사자 298명과 2022년 공제 만기 미도래자 200명, 1년 만기자 160명,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자 30명 등이 있다.

추진한다.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모두 200명이다.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기술교육원과 협업해서 265명의 조선 기능인력을 교육하는 특화사업 '전남도 조선업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최근 국내외 경기 회복세에 따라 조선업 수주 물량이 늘고 있지만 2016년 고용위기 여파로 인력 유출과 조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022년 전남 조선업체 연령별 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서남권 조선 관련 기업 96개사는 상반기 1277명, 하반기 1124명 등 2401명의 인력이 필요했다. 2400여 명의 인력 수요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35.6%(855명)이었고, 나머지 646명에 대해서는 중장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류현수 전남조선업도약센터 본부장은 "조선업은 목포 지역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 요소"



목포시와 전남도,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6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약정서'를 열고 서남권 조선업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목포시 제공>

라며 "전남조선업도약센터가 좋은 일자리 상생 구조를 만들어 조선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구인·구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조선업도약센터(061-801-5757)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해남 가업 점포 승계 청년에 최대 1000만원

### 인테리어 개선·브랜드 개발 등... 18~49세 대상 해남YMCA에 신청

해남군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과 확산을 위해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에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만 18~49세 이하 청년이면서 (조)부모의 가업 승계·확장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가(창업한지 2년 이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인테리어 개선과 브랜드 개발, 광고홍보비, IT기술 도입, 기술·제품 개발 등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해남YMC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은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도 실시한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은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점포환경 개선과 POS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육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시설 집

기류 구매,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카드단말기, 위생·안전관리 등 업체당 200만원 한도(자부담 10%) 내에서 지원한다. 해남군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기한은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접수(해남YMCA) 또는 이메일(yorca55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해남=박영길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에 치매전담 요양시설 추진

### 6월까지 계획 수립...치매노인 공적지원해 부양 부담 완화

영암군이 노인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근거해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노인의 공적지원을 강화하며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영암군은 향후 최적화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선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용역업체의 연구보고에 이은 영암군 치매노인인구 및 요양기관 현황 보고,

타 지자체 요양기관 운영 사례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또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영암군은 보고회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사안들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의 미비점을 보완, 오는 6월까지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치매전문 요양시설의 부재로 인한 전문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존 시설 활용방안과 후보지의 입지환경, 경제적 타당성까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요양시설로 건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훈 기자 jbh@kwangju.co.kr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체육시설을 갖춘 완도가 전지훈련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대학교 축구팀 훈련 모습. <완도군 제공>

## 따뜻한 완도, 동계 전훈지 각광

### 최근 3개월간 70개 팀 941명 훈련... 지난해 1만2100명 체류

완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941명의 체육인이 완도에서 전지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 종목의 70개 팀이 완도에서 훈련했다. 지난해 연간 훈련 인원은 1만2099명에 달한다.

이는 연간 최대 훈련 인원으로 기록됐다. 완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배드민턴 명문 팀인 삼성생명과 요넥스, 한림대학교, 태국 프로 산하 유스팀 등이 다녀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은 청해진 스포츠센터 등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음식·숙박업소 등 서비스 부문을 강화해왔다. 완도에 전지훈련 팀이 체류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0억원으로 파악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우리 완도가 전지훈련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수중 암초' 신안 병풍도 해상에 등대

### 김 양식 관리선 등 선박 안전사고 예방...9월 준공

신안 병풍도 해상에 오는 9월까지 등대가 설치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인근 수중 암초에 등대(등표)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등대는 김 양식 관리선 등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다. 등대가 설치되는 해역은 증도와 지도, 선도, 병풍도를 오가는 선박의 합류 지점이다. 이곳에는 수중 암초가 넓게 퍼져 있어 밀물 때

시계가 흐려 배가 얕히는 등 사고 위험이 컸다. 등대는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6억3000만원을 들여 설치한다. 지름 6m, 높이 13.8m 규모 원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들어선다. 올해 10월 열리는 신안 맨드라미 축제와 12사도 순례길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신안 병풍도를 찾는 관광객의 여객선 안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고령자 친화마을' 신안 증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강좌 모습.

### 치매안심마을 운영

신안군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증도면에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한다. 2022년에 이어 대상자를 확대해 일반주민과 치매대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2019년 지정된 팔금면 이목마을, 지난해 9월에 지정된 증도면 증서마을 등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고 고령화 시대에 치매가 사회현상만큼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거주지에 살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매인식개선 교육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안심업소 및 기관지정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보육·돌봄 통합' 해남 가족어울림센터 개소

### 이달부터 운영...오감발달 놀이교실·소통 프로그램 등 다채

해남군이 보육과 돌봄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를 완공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1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남읍 구교리 옛 해남공공도서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37.39㎡ 규모로 건립했다. 1층에는 고품질해남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으며, 2층에는 장난감도서관, 동네카페, 실내놀이터, 소통교류공간, 3층에는 해남군 가족센터(옛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동네부엌, 4층에는 교육장이 조성됐다.

센터에서는 기존 각 시설의 기본 프로그램 외에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해 가족의 보육과 돌봄, 가족지원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써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코칭 스킴과 함께 동네부엌 프로그램으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오감발달 놀이교실, 가족소통 프로그램, 어울림 가족 요리교실, 글로벌 맛집 쿠킹 클래스 등이 운영된다. 센터는 지난 2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한데 이어 3월부터 시설 운영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개관식은 4월 초에 가질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형 노인일자리' 발대

### '영광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 200명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영광시니어클럽은 지난 7일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일자리 발대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우리동네 갈매기', '어린이집 시설 봉사'를 하게 된다. 영광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맞춤형 일 자리를 제공한다. 고령자가 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영광군은 기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근무 유의사항과 근무 일정을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했다. 올해 참가자는 모두 21개 분야 2049명이 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공공시설 봉사활동, 경로당 급식 도우미, 공원놀이터 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